

# 포스트코로나시대 청각장애인 안전망 확충

엄성연

강원도농아인협회강릉시지회장

# 순서

- ✓ 강원도 및 청각장애인 현황
- ✓ 강원도 청각장애인의 고충
- ✓ 강원도 청각장애인 맞춤형 정책 필요성
- ✓ 강원도형 안전망 확충 제안

# 강원도 현황

# 강원도 현황

- 행정구역: 18개 시·군 (7시, 11군)
- 면적: 16,873.54km<sup>2</sup> (서울의 28배)
- 인구 : 1,542,374명 (2020)
- 청각언어장애인수 : 14,837명 (2019)
- 청각언어장애인 비율 : 0.96% (전국 0.72%)

# 강원도 현황

- 65세이상 고령인구 20.1% → 2020년 초고령사회 진입
- 장애인 고령화율은 더욱 심각 (50% ↑)

# 강원도 현황

- 산불, 태풍, 수해, 폭설 등 재난재해 빈번
- 교통, 산업, 문화, 의료, 복지 인프라 상대적으로 부족

# 강원도 청각장애인의 고충

# 강원도 청각장애인의 고충

- 2019년 7월, 장애인등급제 개편 → 유형별 맞춤형 복지 확대 시행
- 발달장애인지원 포함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약1조5천억(2021)  
→ 전체 장애인정책예산의 절반에 육박
- 그러나, 청각장애인은 활동지원(맞춤형)을 받지 못함
- 정부의 ‘맞춤형 복지’ 확대정책 시행 3년차에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변화는 체감할 수 없음



# 강원도 청각장애인의 고충

-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된 정부브리핑 수어통역 정도가 눈에 띄는 변화
- 강원도 청각장애인은 대부분 농아인협회를 통한 공적수어통역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
- 도내 수어통역센터 현황 : 도본부 1개소, 시군센터 18개소
- 복지 인프라 부족 : 청각장애인 단종 복지관, 야간수어통역센터, 농아노인복지센터, 농아인주간보호시설 등 없음 + 다른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이용에 한계

# 강원도 맞춤형 정책 필요

# 강원도 맞춤형 정책 필요

- 2019년 속초, 고성 대형산불 시 속초시농아인협회 대응 사례
- 태풍, 수해, 폭설 등 빈번한 재난재해
- 2020.9. 청각장애인 산악회원 17명, 인제방태산 조난, 밤샘 구조 사례
- 특히, 작년초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등을 겪으며..
- 재난재해, 위급상황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과 상황대처 지원체계가 매우 취약함을 확인

# 강원도 맞춤형 정책 필요

- 인구대비 넓은 면적,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
  - 미흡한 청각장애인 복지 인프라 개선에 선택과 집중 필요
- 강원도 청각장애인의 생명과 건강, 그리고 긴급,응급상황시 안전 확보 등 기본적 인권보장에 집중하여 몇가지를 제안코자 함

# 강원도형 청각장애인 안전망 확충 제안

# 강원도형 안전망 확충 제안

## 1. 청각장애인 건강권 보장 대안

→ 거점의료기관 수어통역사 상시 배치 (춘천, 원주, 강릉)

\*현재 강원도장애인복지기금으로 시범사업 시행중 (2018~ )

\*2018년 3개소, 2019년~ 2개소에 개소당 연750여만원 예산

\*수어통역사 1명이 하루 3~4시간 시간제로 1년중 9개월~10개월 근무

# 강원도형 안전망 확충 제안

2. 긴급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, 기본적 생활, 생존권 보장

→ 상시 긴급 통역시스템 구축 : 24시간 수어콜센터 설치운영

\*비상상황 시 119, 112 연계 조치 등 농아인 안전, 안심 체계 구축

\*언제든지 상담과 수어통역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면

심리적 불안 해소 + 실제적 위험 대비

# 강원도형 안전망 확충 제안

## 3. 초고령사회 대응

→ 청각장애홀몸어르신(고령 1인가구) 생활지원사 지원사업

\*정기방문 및 전화, 문자, 영상통화를 통해 건강, 안전 확인 지원체계 구축

\*시군수어통역센터-24시간 수어콜센터-119, 112 등 연계 추진

\*고령인구의 건강, 안전에 대한 심리적 불안 경감 + 실제적 위험 대비